

광주 친환경차 부품생산 기업에 돈줄 푼다

산업부, '친환경차 이차보전 금융기관'에 광주은행 선정 중소·중견기업 100억 한도 저리 대출...대출이자는 지원 광주시, 광은 포함되도록 다각적 노력...“금융부담 덜어”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친환경차 보급촉진 이차보전사업'의 취급 금융기관에 광주은행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친환경차 보급촉진 이차보전사업'은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비,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전용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100억원 한도로 저리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 해준다. 대출이자는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은 1.5% 한도 내에서 시설·인수합병(M&A) 자금은 8년 이내, 연구개발자금은 5년 이내 지원한다.

이번 이차보전사업 취급기관 공모사업에서 광주은행이 최종 포함됨에 따라 광주·전남에 위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제작·조립하는 부품업체들에게 대출이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산업은행 등 중앙은행

이나 타지역 은행에서만 취급해 오던 '친환경차 이차보전 금융상품' 취급기관에 지역은행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차보전 사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 부품기업은 심사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iat.or.kr) 또는 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인 K-PASS(https://www.k-pass.kr/)에 신청하면 되며, 산업기술진흥원의 심사완료 및 발급된 추천서를 첨부해 광주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공고일로부터 4월 중순까지이

며, 2025년 이차보전 지원 규모는 54억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신규 수혜기업 모집이 마감된다.

이동현 미래차산업과장은 “그동안 친환경차 이차보전사업 취급기관에 지역 금융기관이 포함되지 않아 광주 친환경차 관련 부품기업들이 접근성 부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올해에는 지역 금융기관인 광주은행이 포함됨에 따라 광주 부품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NEWS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추진 도, 지난해 특히 14건 등 성과

전남도가 수소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추진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소연합)가 주관한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2024년 1차년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 받아 2차년도(202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전남도는 지난해 14개 기업을 예비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해 기업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수혜 기업은 특허 등록·출원 14건, 시제품 제작 8건 등 기술력 향상, 시장 진출 역량 강화에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수소전문가 19명 양성, 신규 고용 창출 58명 결실도 봤다. 특히 실적이 우수한 2개 기업은 산업부의 수소전문기업 신청요건을 충족해 5월께 수소전문기업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다.

전남도의 지원을 받은 한 수혜기업 대표는 “아직 국내 수소산업이 낮은 기술 수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남도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의 꼼꼼한 1대1 컨설팅 덕분에 신기술 개발로 매출이 크게 늘었다”며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에 고향사랑기부하면 참돔 추가 제공 내달 30일까지 이벤트... 답례품 후기 작성시 자동 참여

전남도가 봄을 맞아 4월 3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후기를 작성하면 여수 참돔을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다가오는 봄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온가족이 함께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제철 음식 '참돔 1미(300g)'를 추가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봄철 참돔은 지방이 적고 열량이 낮을 뿐 아니라 소화도 잘 돼 다이어트 중인 사람과 수술 후 회복기 환자에게 좋다.

이벤트 참여는 전남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후,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주문·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자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된다.

온라인에선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액티부키(놀고 밥), 국민은행(KB스타뱅킹), 기업은행(I-ONE Bank), 신한은행(신한SOL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에서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강기정 광주시장이 17일 시청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광주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간담회에 참석.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관광기업들의 의견 등을 청취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관광기업 '광주 방문의 해' 성공 맞손

관광기업지원센터 14개 입주기업들과 관광활성화 방안 논의 강 시장 “광주만의 관광구슬 꿰어 보배 되도록 마중물 역할”

광주시와 지역 관광기업들이 관광산업 활성과 '2025 광주 방문의 해' 성공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17일 시청 비즈니스센터에서 신홍식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장과 14개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 민생경제 정책을 공유하고, 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 소개,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관광기업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광주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국제 메가 이벤트가 개최된다”며 “광주의 다양한 색깔을 가진 구슬들을 꿰어 보배가 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 등으로 광주 방문의 해 성공에 적극 참여해달라. 광주시도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관광기업 성공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관광기업들은 “입주 사무실 제공, 다양한 컨설팅과 상품개발 지원 등 광주관광

기업지원센터 지원 사업 덕분에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다”며 “광주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 연계 개발 및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광기업들은 5·18민주화운동, 무등산, 야간경관 등 관광관전조기 풍부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광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22년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해마다 국·시·비·각 10억원 내외의 지원을 받아 관광스타트업 발굴과 관광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

김대중재단, 20일 '대주교 윤공희' 평전 헌정식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참된 성직자의 길’ 기려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에서 한국 현대사와 교회사를 관통하는 살아 있는 역사, 윤공희 대주교님의 삶과 신앙을 기록한 평전 '대주교 윤공희의 헌정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970년~1980년대 대한민국의 독재와 억압의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지키며 참된 성직자의 길을 걸어온 윤공희 대주교님의 발자취를 기리는 자리이다.

특히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보호하며 진실을 알리고,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천한 그의 용기 있는 행보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기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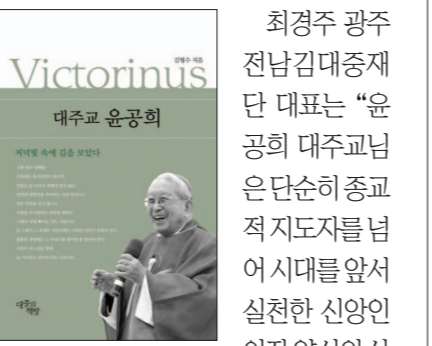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를 위해 헌신해 온 그분의 일대기를 평전으로 엮어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이번 헌정식을 마련했다. 윤공희 대주교님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공유했던 동지로서 깊은 신뢰와 지지를 보낸 거인이었다. 두 분의 신념과 헌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의 토대가 됐다.

대한민국이 현재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두 분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향한 불굴의 의지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이번 '대주교 윤공희' 평전 헌정식은 영수정 추기경님을 비롯한 전주교 광주대교구 육현진 대주교, 최창무·김희중 대주교 등 전주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해 온 재야 원로 및 시민사회 대표들도 함께하며 그 의미를 더한다.



최경주 광주전남김대중재단 대표는 “윤공희 대주교님은 단순히 종교적 지도자를 넘어 시대를 앞서 실천한 신앙인이자 양심의 상징이며, 정의를 실천한 지도자였다”며 “그의 신앙은 단순한 교리적 가르침을 넘어 억압받는 이들을 대변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행동하는 양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주교 윤공희 평전 헌정식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헌정식을 통해 윤공희 대주교님의 삶과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과 가르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승기 sky@gwangnam.co.kr

제21회 영산강사랑사·도민 제9회 나누사랑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한마음 걷기대회

2025. 3. 29. (토) 09:00~11:30

다양한 경품지급 참가자 행운권 추첨

'영산강 환경정화 캠페인' 참가학생에게 → 자원봉사(1365) 2시간 인정

- 행사장소: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호수로 77)
-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참가비 없음)
- 참가기간: 2025년 2월 17일(월) ~ 3월 27일(목) 까지
- 참가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www.gwangnam.co.kr)
- 문의: 광남일보 사업국 T. (062) 370-7090

※ 후원(시·도)도 인정합니다.
※ 걷기 인증금(여건에 따라)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유행장치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광남일보, 시·정·민·군·민·군·민·군, 광남일보 iTV
후원: 나주시, 나주시민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 대한민기자협회, 전남도지정, 나주시 영암우계지협